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1일)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입재했다. 사진은 송광사 괘불 앞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순례 의지를 다지는 입재식 봉행 모습.

통도사, 차기종정 후보 성파스님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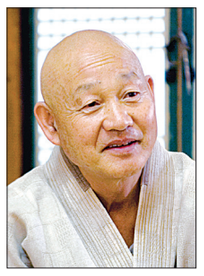
9월 25일 회의서 결의… 성파 스님 "대중 뜻 따를 것"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방장 성파 스님<사진>을 차기 종정 후보로 추대했다. 통도사는 9월 25일 주지실에서 회의를 열고 방장 성파 스님을 차기 종정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성파 스님은 주지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의 의견을 듣고 "대중의 뜻이 이와 같다면 따르고자한다"며 종정 후보로 추대함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대중들이 결의를 알리며 박수를 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방장 성파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음에 그런 뜻을 들었을 때 내가 자격이 되나 걱정했다. 통도사 대중들의 뜻을 들었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원로회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관계자는 "방장 스님이 종정 후보로 외부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으로 알고있다"며 "통도사 대중들이 힘을 모아 방장 스님을 추대하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前 주지 원산 스님, 영배 스님, 전계사 혜남 스님, 유나 항조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 강주 인해 스님, 산내 대종사 스님들과 중진 감원 스님들을 비롯해 3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성파 스님은 명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1998년 봉암사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30여 안거를 성만했다. 제5·8·10대 중앙종회의원,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4년 1월 7일 동화사에서 대종사법계를 품수했다. 2018년 3월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됐으며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중흥 순례' 첫 발 내딛다

상월결사, 10월 1일 송광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

대중들 송광사 참배하며 결의
순례단 108명 가사 염주 통일
각계 "국민화합 계기" 응원해
첫날 22km 순례, 대장정시작

순천 송광사=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근간을 이룬 정혜결사처 조계산 송광사에서 새로운 결사가 시작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1일 순천 송광사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입재했다.

비구 우봉 스님, 비구니 지해 스님, 우바새 정충래, 우바이 이태경 씨를 대표로한 천리순례단은 "불법승 삼보의 불국성지가 이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불교의 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종찰을 두루 알려 상월결사 공덕을 전법으로 승화하고자 한다"며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도 똑같이 살아있음을 환희심으로 체감하고, 한국불교 전통계승 순례, 불교중흥 순례, 사회화합 순례를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입재식은 송광사 괘불을 내거는 행사를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와 결사 수행을 상징하는 죽비 전달, 고불문 낭독,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법문, 김영록 전남도지사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법석에 오른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정혜결사 정신과 상월결사 정신이 다르지 않다며 천리순례단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현봉 스님은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것이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라며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자는 상월결사는 신심과 원력의 장이다. 이 순례는 문명의 세태 속에 침체된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는 나침반이자 사통발달의 한국불교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높히 평가했다.

또한 스님은 순례단에게 "부처의 길을 따르려 하지 말라. 진실로 참구하여 걷는다면 여러분이 부처요, 부처가 여러분을 따를 것"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입재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법주사 주지 현고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참석해 송광사 산문 앞까지 배웅하며 천리순례단의 첫 발걸음에 힘을 보탰다. 입재식에 앞서 순례단이 진행한 송광사 참배는 상월결사가 새로운 시대의 결사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천리순례단은 16국사의 진영이 모셔진 국사전과 보조국사감로탑에서 절을 올리며 새로운 결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졌다.

입재식 후 순례단은 바로 첫날 순례를 진행했다. 첫 순례는 전남 곡성군 구룡리 용바위주민생활체육공원까지 22Km구간에서 펼쳐졌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초가을의 들판과 단풍으로 변해가는 숲길에서 순례단은 행선을 이어갔다. 이날 순례단은 지난해 상월결사 자비순례 때보다 늘어난 인원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순례를 진행했다. 묵언 속에 전날 지급받은 108염주를 돌리고, 가사까지 함께 수한 재가 불자들과 스님들의 모습에서 경건함이 느껴졌다.

한편, 상월결사 천리순례에는 각계 각층의 응원 메시지가 전해져 의미를 더했다. 입재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백만 원력 결집의 현장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서 상월결사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계를 대표해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도 각각 "수행정진의 서원을 가슴에 새기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 "순례로 삼보의 존귀함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불교가 국민들로 사랑받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국난 극복 의지를 모으는 여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원력일 될 것"이라고 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천리 순례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희망을 위한 대장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불자배우 이덕화 씨는 "힘겨운 여정을 지켜보는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응원대중으로 동참해 마음으로 함께 걷겠다"고 했고, 김형석 작곡가도 "코로나로 공포와 불안 등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나마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불자연예인인 김혜옥, 이경규 씨와 불자가수 장사익, 김흥국, 불자국악인 김성녀, 회주 자승 스님과 인연이 깊은 배우 김수로 씨와 종립 동국대 동문인 배우 조여정 씨 등도 영상을 통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佛教聖典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 권에 담겨있습니다.
동국역경원
문 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02-2264-4714 | abook@jeongjincorp.com

다음주 발행 1359호는 연휴 관계로 늦게 배송될 예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WORLD HERITAGE PROMOTION PROGRAM
문화재청
10월 9
영축삼보 이운
괘불헌공
숲속작은 음악회
10월 14
영고재
개산대재 법요식
부도 헌다례
2021
9. 18(토) ~ 10. 17(일)
개산 1376주년
開山大齋
개산대재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개산 1376주년 개산대재
나눔과 참여의 장

01 영축삼보 이운
일시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부도원
02 괘불헌공
일시 10월 9일 오전 10시
장소 괘불대 앞
03 영축문화공연
일시 10월 3일 오후 2시
장소 육화당 건너편 무대
04 괘불 특별전
일시 10월 9일 오후 1시 ~ 2022년 2월
장소 성보박물관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개산 1376주년 개산대재
역사와 문화의 장

01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
일시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설법전
02 부도 헌다례
일시 10월 14일 오후 2시
장소 부도원
03 가사배견
일시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장소 성보박물관
개산 1376주년 개산대재
문화행사 및 전시

01 통도사 문화재 알기 체험
일시 9월 18일 ~ 10월 17일(토, 일)
장소 불이문, 일주문
02 국화장엄
일시 9월 10일 ~ 10월 25일
장소 도량 일대
03 특별전시
나도 작가다
일시 9월 18일 ~ 10월 17일
장소 감로당 앞
「통도」 표지 및 컬러링 전시
일시 9월 18일 ~ 10월 17일 장소 성보박물관 주변
04 연꽃 사진전, 도자기 전시, 서각 전시
일시 8월 29일 ~ 10월 17일
장소 명월료(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382-7182 Fax 055)382-7196 www.tongdosa.or.kr